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첫 번째 간담회

- 성소수자운동과의 만남 제안서

수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날짜 : 2007. 5. 3

문의 : 배경내

안녕하세요? 귀 단체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뿔뿔이, 한해살이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2006년 3월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은 지금까지 두발자유, 체벌금지과 같은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약하나마 학생인권은 사회의 한 화두로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문제가 청소년 인권 문제의 전부는 아닌 만큼 청소년인권운동을 확장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저희는 계속 해왔습니다. 비학생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여성 청소년, 장애 청소년과 같이 청소년 내부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저마다 처해진 위치에서 '미성숙한 존재' 라는 굴레에 더해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들이 존중되고, 그/녀들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그때야 진정한 청소년인권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아직 '문제'로만 제기되고 있을 뿐, 아직 청소년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구체적인 '운동'으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정체성과 맞물리는 다양한 문제들의 연대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간담회는 서로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10대 성소수자' 인권과의 만남

- 첫 번째 경계를 넘는 주제로 '10대 성소수자'를 선택했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레즈비언상담소를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 경험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담회 안에서 두 단체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비롯하여, 간담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담회

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참여 범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 간담회로 열면서 대중 홍보는 하지 않되, 저희 행사를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분들에게는 열어두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담회 참석자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때** : 2007년 5월 12일(토) 오후 5:00-7:30
- **곳** : (구)선교교육원 강당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 **초대 단체** :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참여자 규모** : 20명 정도
- **네트워크 측 참여자 특성**
 - 10대와 20대 초반 활동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소속 단체의 청소년 회원들과 청소년인권활동 캠프/토론회 참석자도 함께 모시려 합니다.
- **간담회 주요 내용**
 -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대략적 소개
 - 특히 10대 성소수자, 10대 레즈비언의 삶과 인권
 - 10대 성소수자의 인권 확보를 위한 운동들의 흐름과 고민들
 - 청소년인권운동의 재구성 과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대한 제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1탄 - 10대 성소수자

[간담회 순서]

▣ 1부. 이야기보따리 풀기

0. 들어가며

- 시작멘트 : 간담회 개최 배경 => 사회자
- 참여자 소개 => 모두모두

1. 단체 소개 => 상담소/ 동인련

2. 성소수자 인권 현황

- 1) 동인련 - 성소수자 일반
- 2) 상담소 - 레즈비언에 초점

3. 10대 성소수자

- 1) 10대 성소수자의 삶과 현실 - 학교, 가족, 온라인 등 => 동인련
- 2) 10대 레즈비언의 삶과 현실 - 학교, 가족, 온라인 등, 10대 레즈비언을 옥죄는 3중의 굴레 => 상담소

4. 10대 성소수자를 위한 활동의 역사와 계획 => 상담소/ 동인련

5. 청소년인권운동의 재구성 과제, '10대 성소수자 주체들의 운동' 만들기 위한 과제

=> 상담소/ 동인련

6.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건네는 연대 제안

=> 동인련/ 상담소

▣ 2부. 질문보따리 풀기

- 질문과 대답/ 난장 토론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두 번째 간담회 - 장애청소년운동과의 만남 제안서

수신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시설인권연대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날짜 : 2007. 7. 27

문의 : 배경내

안녕하세요? 귀 단체에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뿔뿔이, 한해살이 청소년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2006년 3월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은 지금까지 두발자유, 체벌금지와 같은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약하나마 학생인권은 사회의 한 화두로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문제가 청소년 인권 문제의 전부는 아닌 만큼 청소년인권운동을 확장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저희는 계속 해왔습니다. 비학생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여성 청소년, 장애 청소년과 같이 청소년 내부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저마다 처해진 위치에서 '미성숙한 존재'라는 굴레에 더해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들이 존중되고, 그/녀들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 그때야 진정한 청소년인권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아직 '문제'로만 제기되고 있을 뿐, 아직 청소년인권운동 진영 내에서 구체적인 '운동'으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정체성과 맞물리는 다양한 문제들의 연대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인권, 경계를 넘다'라는 이름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간담회는 서로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장애 청소년' 인권과의 만남

- 지난 '10대 성소수자' 인권에 이어 두 번째 경계 넘기 주제로 '장애 청소년'을 선택했습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시설인권연대를 모시고 장애청소년의 삶과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 대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지 보시고, 함께 조

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 : 학교 안 장애청소년

- 1) 장애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 인프라는 어떨까?
- 2) 장애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교사 그리고 수업은 어떨까?
- 3) 장애인 교육권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2부 : 시설 장애청소년

- 1) 시설이란 어떤 공간이고, 그곳에서 장애청소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 2)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3) 지금까지 있었던 시설 관련 운동들은 어떠했고,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

3부 : 경계 넘기

- 1) 장애청소년인권운동이라 불릴만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 2) 장애청소년인권운동의 과제, 극복지점은 무엇일까?
- 3)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 때 : 2007년 8월 3일(토) 늦은 3시
- 곳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
- 초대 단체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시설인권연대
- 참여자 규모 : 30명 정도
- 네트워크 측 참여자 특성
 - 10대와 20대 초반 활동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장애인 인권에 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소속 단체의 청소년 회원들과 청소년인권활동 캠프/토론회 참석자도 함께 모시려 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리고 개인 활동가들